

7명이 체험하고 누린 영성의 축복의 마지막이다. 바울이 누린 영성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이다. 다시 정리한다. “영성”이란 말은 한마디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고,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상태다. 인생이라 함은 나의 내면, 하는 일, 시간표(어린든 늙든 상관없다), 머문 자리까지 다 포함된다. 이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, 교회 살리고, 후대 살리고, 세상 살리다 가는 것이다. **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은 험넌트들은 언제 이 축복을 체험했을까?** 지난 주에 이사야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내 모습을 진짜 볼 때이다. 자기 개인, 나라, 시대 속에 고통이 계속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. 문제가 올 때 사람은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애를 쓴다. 그러다 해결되면 다행이고, 안 되면 절망하고 자포자기도 한다. 그때 대부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분노하기도 한다. **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답을 얻는다. 먼저는 그 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.** 사6:13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, 구원하시고, “거룩한 씨”라고 했다. 어떤 경우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생명(영적 DNA)을 가진 것이다. **연약하고 무능한가? 그 분이 준비한 것을 찾으면 된다.** 오직 그 분을 바라보면 다른 힘을 주신다고 했다(사40:31). 마지막 깨닫는 것이 그 속에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, 미션이다.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시는 것이다.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나 같은 자 살리고, 세상과 시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(사60:22, 62:10) **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다.** 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정말 쓰임 받을 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가 아니었다. 사실은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쓰신 것이다. 그 능력이 영성이다. 바울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세 단계, 세 시간표가 있는 것 같다.

1. 자기 기준, 자기 열심, 자기 능력으로 사는 때이다. 사실은 이것이 불신자가 사는 삶이다.

빌3:4-6에 바울 자신도 꽤나 육체를 신뢰할만한 것이 많았다고 했다.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.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낸 12가지 저주 속에 빠진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불신자 인생이다.

- 1) **먼저는 창3(나 중심), 창6장(육신 중심), 창11장(성공 중심)에 잡혀 있는 나의 근본이다.** 내 기준, 수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 나를 못 뛰어 넘는다. 육신 기준에 빠져 있으니 영적인 것 못 본다. 육신의 것은 무너지고 흠으로 돌아가니 허무 밖에 안 남는다. 세상에서는 끝없이 경쟁하고 성공하는 듯 하나 상처 밖에 안 남는다.
- 2) **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가?** 행13, 16, 19장에 정치, 경제, 문화, 싸움, 썩어가고 있다. 무속, 점술, 우상 숭배다. 걸으려는 정치, 경제, 문화인 것 같은데, 그 안에는 사단의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. 무속, 점술, 우상 숭배다.
- 3) **개인의 인생 근본은 어떤가?** 불신자 상태 여섯가지를 못 빠져 나가는 것이다(마귀 자녀, 영적 문제, 정신 문제, 육신 문제, 내세 문제, 후대의 대물림). 빠져 나올 수 없는 저주이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하고 사는 것이다. 한국에 어느 대통령, 열심히 살았고, 약한 자들을 대변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. 그런데 마지막 자살하면서 “다 운명 아니겠는가” 하면서 갔다. 그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.

2. 그리스도를 만나고,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이다.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고, 그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다. 행9장에 가보면 바울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간이 온다.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?

- 1) **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신다.**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, 그 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(계3:20).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시간이다.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할 때는 이런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. 대부분 중요한 한 사람이(가족이든, 다른 전도 대상자이든) 주께 돌아올 때를 보면 그 배후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(계8:3-4)
- 2) **이때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?**
 - ① **영접하는 순간 나의 지나는 과거의 허물, 오늘의 실패, 미래의 부끄러움까지 십자가의 피로 덮여지는 것이다.** 내 영혼 속에 그 분이 거하시면서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는 것이다(빌1:6) 이 복음만 깨달아도 자유함이 오고,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. 이때 영적인 치유와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진다.
 - ② **문제는 은혜 받고도 계속 갈등한다. 내 삶이 치유되어야 한다. 그 시작이 뭔가? 하나님이 나를 보게 만드신다.** 내 안에 빛을 비추셔서 나의 숨은 어둠(나의 연약함, 거짓됨, 약함)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. 바울처럼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보는 사람도 있다. 3일간 소경이 된다. 내가 나를 못 보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이다. 영적 소경이 되면 내가 얼마나 나 자신과 세상과 마귀에 속고 살았는지 못 본다. 시간이 가면서 말씀,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볼 수도 있다. 그것은 하나님 시간표이다.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나를 보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.

3.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(영성), 그 분의 소원과 미션을 위해 쓰임받는 시간이다(세계복음화).

- 1) **우리가 평상시에 조금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,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을 체험한다(그것이 24시다)** 듣는 것, 보는 것, 생각하는 것, 말하는 것, 호흡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훈련하는 것이다. 그때 살전5:16-18이 나온다. 기쁨이 생기고, 사는 것이 기도요, 모든 문제에서 감사 나온다. 평상시 영성이다.
- 2) **그러다가 어려운 시간을 만날 수 있다. 위기가 오고, 바울처럼 치명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다.** 어떤 시간인가? “오직”의 시간이다.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? 뭘 위해 허락하시는 시간일까?
 - ① **분명한 결론을 잡으라는 것이다(행1:8).**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. 이 문제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이다. 바울은 그때 “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”는 것이다. 유일성이다.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랑할 것이 두가지 밖에 없다고 했다. 여러 약함(5절)과 오직 그리스도(갈6:14)이었다.
 - ② **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(고전2:10).** 내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이 깨달아진다.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고통이 깨달아진다.
 - ③ **그때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진정한 도전을 할 수 있다.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.** 오직 그 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도전이다. 실제로 바울은 그 병을 가진 채 훗날 로마복음화에 도전한다. 행19:21에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“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” 도전한다. 로마로 가는 길에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무슨 답을 주시는가? “바울아 두려워말라 네가 가야 할 곳에 서야 하리라”(행27:24)

결론-약한 것도, 실패한 것도, 질병도 문제 아니다. 우리를 영적 씨앗으로 만들어 세상 살리는 자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. 기능 씨앗, 문화 씨앗의 축복은 따라 온다. 이 연약 붙잡고, 모든 문제 사건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한다.